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

## “ 시로 오리산업 자체 위축과 성장 반복 ”

“경기도는 금년 6월 기준 전국 사육농가 대비 2% 정도 규모인 22농가 17만수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주로 안성지역에 사육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경기도가 한 때 오리산업의 초석이 됐던 곳이었으나 AI와 도시화로 인해 오리농가가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운을 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고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말을 꺼냈다.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산 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해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오리고기를 좋아해서 많이 사먹는 편인데 오리산업이 AI 등으로 위축된 것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국장은 AI로 오리산업 자체가 위축과 성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리산업 총 생산액은 2011년 1조3,900억원을 돌파하였으나 AI 발생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며 2017년 8,700억원까지 축소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1조3,300억원까지 회복됐으나 다시 2020년 8,100억원까지 하락했습니다. AI가 크게 발생할 때마다 생산이 위축되면서 산업자체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00년대초 AI 발생 오리고기 소비 크게 위축 철저한 차단방역 오리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을

### 가축 방역, 오리 산업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 질병검사-소독지원-방역점검-사육관리 최선



실제로 AI 통계를 보면 오리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을 사실이라는 것이다.

“매년 겨울철 반복 발생하는 고병원성 AI의 축종별 통계를 보면 상대적으로 오리농가의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2022~2023년 통계를 보면 오리가 38농가, 닭이 33농가, 메추리 2농가, 기타 2농가입니다. 특히 오리는 대체적으로 축사 시설이 열악하고 AI에 감염되어도 조기에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바이러스 확산에 매우 취약한 축종입니다.”

이 국장은 2000년대 초 AI 발생으로 오리고기 소비가 크게 위축됐던 때를 상기시켰다. “2000년대 초에는 AI 발생으로 급격히 오리고기 소비가 위축돼 식당뿐만 아니라 농장, 계열사까지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던 사례를 볼 때 농장에서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오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1인당 오리소비량을 보면 2002년 1,090g에서 2004년에는 720g으로 현저히 줄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차츰 다시 늘어나긴 했지만 AI는 오리고기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축 방역은 오리 산업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했다.

“많은 오리농가들이 철저한 방역의식으로 내 농장, 내 오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오리 사육농가에서 열악한 축사시설과 방역의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난 동절기 AI 발생 오리 농가의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모든 농장에서 방역시설 관리 미흡, 방역수칙 위반 등의 사례가 확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오리생산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축사시설과 농장 종사자의 철저한 방역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경기도에서도 더 이상 오리농가에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검사, 소독지원, 방역점검, 사육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